

지역 소식통

정읍시, 환경미화 종사자 단합 행사

정읍시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들이 단합행사를 가졌다.

시는 지난 22일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상호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환경 미화원과 청소차 운전원, 재활용 선별원 등 90여명이 참석해 체육경기를 함께 하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을 찾은 김생기 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환경 미화 종사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진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부안군 진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1일 면사무소에서 진서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18개 세대, 긴급(생계, 의료) 지원 및 이웃돕기 지원 내역 등 100여 세대 10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상반기 지원 실적을 공유했다.

특히 가구 및 개인문제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18개 세대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진서 면내 아동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문화가족 지원 및 배우자사업, 급식지원사업 등 아동복지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상동지구대-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근절 위한 간담회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는 지난 21일 정읍 가정폭력 상담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들과 상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와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상담소에서 하는 일 등 상담소 운영하는 체계를 설명해주며, 가정폭력 상담소와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찬 상동지구대장은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방안과,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소에서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 직원들에게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정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위한

정읍시, 특별대책기간 운영

7월 7일까지 의무 가입... 신규 영업점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정읍시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 위해 나섰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숙박시설과 주유소, 점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등 19종 시설이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기간(6. 19일 ~ 7. 7일)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대상시설(업소)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까지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과 숙박업소, 점례식장, 주유소, 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100㎡ 이상) 등 모두 7종 627개소 시설물이 가입 대상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가 게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가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랜드리테일, 상생협력 업무협약

고창군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우수 농·축산물에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판매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이랜드리테일 및누리농업법인(대표 정자성)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창 농·축·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이랜드는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고창 농·축·수산물 품을 공급받고, 고창군은 지역 내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소득 증대를 이뤄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이후 이랜드리테일 계열 매장 등에서 고창 농·축·수산물 판매 홍보

전이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첫 홍보 판매전은 다음 달 하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우수한 고창 농·축·수산물을 도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경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 및누리농업법인 정자성 대표는 "고창지역 농가들이 소득을 얻고 이랜드리테일은 고객들에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호협력력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하계사료작물 생산량 증대 총력

안정적 조사료 공급 위해 50억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신유량 증가, 고품질 우유생산 번식능력 향상, 기호성 증대 등 조사료육에 필수적이고 경제적인 하계사료작물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생육상태가 저조해 옥수수 수단의 파종 현황 생육상태에 영향을 실시하고 사료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옥수수 5.6천(280ha)과 수난 15.4천(385ha) 등 665ha 면적에 하계 사료작물의 종자를 공급하고 지금까지 종자공급액의 약 45%(인 235ha)를 파종했다.

옥수수 생육상태는 현재 조장이

10cm 정도로 예년의 50cm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어 생육상태가 저조한 지역은 스프링클러를 이용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우 불량한 지역은 재파종토록 했다.

아울러 하계사료작물을 파종하지 못한 농가는 단비가 오면 바로 파종할 수 있도록 파종상을 준비하고 파종 후 진압해 발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신면 일원에서 멸강충이 발생해 생육초기인 옥수수 등 사료작물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군은 농가에 공급해 놓은 방제약품을 이용해 방제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을 위해 조사료 수확 제3비 2,218ha에 26억100만원, 생산장려금 4만800톤에 3억9500만원, 종자대 1,950ha에 7억8000만원, 경영체장비 5조에 7억5000만원, 풀사료 생산과 이용성 증대를 위한 사료배합기 등 장비 12대에 4억7800만원 등 총 50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뭄대책과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사료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사용 등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20개 여성용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정읍시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의 보호하고,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취지다.

설치 장소는 시장과 공원, 공공 터미널 등지에 있는 공중 화장실 20개소이다. 설치에는 모두 5000만원이 투입됐다.

안심벨은 화장실 안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벨을 누르면 즉각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이 켜지고 비상벨이 크게 울린다. 특히 경찰 112상황

실과 자동으로 연결해 즉각적인 구조와 범인 검거도 가능한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부에 안심벨 설치 안내판과 경보장치가 표시돼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벨 설치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 상대 강력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3개 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부안군이 자동차 체납 근절을 위해 부안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와 함께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펼쳤다.

군은 22일 3개 기관에서 각각 4명씩으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 및 건전한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 차량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이번 합동단속은 차량용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동차 및 과태료, 통

행료 체납차량을 단속했으며 체납 1건은 현장징수 및 납부 안내하고 관내 체납 2건 이상은 현장징수 및 변호관 영치, 대포 차량 발견시 차량인도 및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단 운영

고창군이 아름다운 생활주변 숲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가로수,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활동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특히 오는 9월까지 고창읍성 10ha를 비롯해 선운산도립공원 생태 숲 5ha 등 지역 내 생활주변 화단과 가로수 식재 지역에 돌발 산림병해충

및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흰불나방 등 피해가 예상돼 병해충 발생 초기에 확산을 막기 위한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로 고창군의 아름다운 소나무를 병해충으로부터 지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상방제 등 방제사업을 펼쳐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di Wine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 750ml 1ea/12% |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375ml 5ea/13% | GIFT SET 6: 500ml 1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